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Vol.75, No.3(2019), pp. 37-56.
https://doi.org/10.16877/kjds.75.3.201909.37

# 문화다양성 담론의 무용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김지영** · 하영미*** · 김은혜****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및 절차
Ⅲ. 연구결과 및 논의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 Ⅰ. 서 론

문화다양성은 전 세계의 공동 관심사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에는 1990년대 이후, 교통통신의 발달과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한 세계화의 가속화 양상이 현대사회에 예견치 못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사회질서의 혼란과 문화 혼종성 등 정체성과 확실성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었고, 인간소외, 폭력, 가난, 고용난, 홈리스, 환경적 안전성 부재, 자민족 중심주의, 불관용 등의 부정적 영향력에 놓이게 된 것이다.[1]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문(2001)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문화는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 사회의 정체성, 독창성을 구현한다. 생태 다양성이 자연에 필요한 것처럼 교류, 혁신, 창조성의 근원으로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혜택으로서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2] 즉, 민감성과 의사소통능력, 그리고 개인의 성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비평적 사고 함양을 문화다양성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 본 논문은 2019년 5월 25일에 열린 한국무용예술학회 제24차 국내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8058996)
** 주저자, 상명대학교 무용예술학과 교수
*** 공동저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예술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전임연구교수, eunhyekim125@gmail.com

1) E. Anttila, R. Martin and C. Nielsen(2019), Performing difference in/through dance: The significance of dialogical, or third spaces in creating conditions for learning and living together,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31, pp.209-216.

2) UNESCO (2010), *UNESCO world report 2: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UNESCO World Report) (이동성, 주재홍, 김영천(2013),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적 특질 및 이론적 배경 고찰, 『다문화교육연구』 6(1), p.52 재인용).

유를 들고 있다. 첫째, 문화다양성은 현재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보호, 증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색적이고 다양한 문화를 나누고 함께하며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셋째, 개인의 열린 시각을 키우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며 문화 창조에 기여하고 문화융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와 정부가 제시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및 무용분야의 선행연구와 문헌들이 밝히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공통된 핵심의 차이는 곧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강조하는 새로운 무용교육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3] 이에 대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관해 무용교육과정에서의 문화적접근의 도입,[4] 문화 간 연결을 위한 무용교육,[5] 문화적응 관점에서의 무용교육,[6]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무용교육,[7] 사회적 평등을 위한 무용교육[8][9] 등 다양한 논의가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다양성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 무용교육의 영역은 아직 발전이 필요한 부분으로 무용교육학에서 문화다양성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차이가 공존하는 다양성은 창의성의 근원,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자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무용교육 내의 문화다양성을 탐색하고 새로운 창조와 혁신을 만들어낸 획일화된 사회보다 다양한 사회가 가질 수 있는 창의적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문화다양성 무용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국외 무용교육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Research in Dance Education'에서 54편, 'Journal of Dance Education'에서 33편, 총 87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Research in Dance Education'학술지는 권위 있는 무용교육분야 학술지로 우수한 연구 및 실습 개발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학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및 방법론 등 무용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학술지이다. 'Journal of Dance Education' 학술지는 무용교육과 관련된 실용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무용교육의 문제들을

3) A. Sööt, and E. Viskus(2014), Contemporary approaches to dance pedagogy–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2, pp.290–299.

4) A. Walker(2019), Rebalancing dance curricula through repurposing black dance aesthetics, *Research in Dance Education* 20(1), pp.36–53.

5) K. Stevens, R. A. Pedro, and S. J. Hanrahan(2019), Building an authentic cultural curriculum through tertiary cultural dance, *Arts and Humanities in Higher Education*(In Press).

6) A. Darder and S. Cronin(2018), A critical bicultural pedagogy of dance: Embodying cultural literacy, *Revista Portuguesa de Educação* 31, pp.26–41.

7) S. Barr and W. Oliver(2016), Feminist pedagogy, body image, and the dance technique class,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7(2), pp.97–112.

8) R. Garrett and A. Wrench(2018), Redesigning pedagogy for boys and dance in physical education,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24(1), pp.97–113.

9) M. Fitzgerald(2017), Community to Classroom: Reflections on community–centered pedagogy in contemporary modern dance technique, *Journal of Dance Education* 17(1), pp.1–7.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무용교육, 교육학, 교수법, 평가, 역사 및 문화적 맥락, 안무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선정된 총 87편의 논문 중 '문화다양성'을 핵심어로 정제하여 'Research in Dance Education'에서 15편, 'Journal of Dance Education'에서 6편, 총 21편의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분석방법과 분류기준

이 연구는 문화다양성 무용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질적 자료인 음성이나 문자 형식의 자료를 객관적, 체계적, 계량적으로 분석 및 기술하는 분석방법이다 내용분석은 연구분야의 현상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를 위해 주로 학술지 논문이나 정부 및 기업의 보고서, 책 등과 같은 텍스트 형식의 자료가 분석에 주로 활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영역, 연구대상, 연구방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3. 자료 분석의 신뢰도

이 연구는 문화다양성 무용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질적 자료인 분석대상 학술지논문은 무용학 교수 3인과 무용학 박사과정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연구동향 분류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평가자간 일치도법을 활용하였으며, 평가자간 일치도 범위 중 일치도는 90% 이상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연구동향 분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5명의 전문가가 합의점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연구의 타당도 확인을 위하여 무용학 교수 1인 교육학 교수 1인에게 심의를 요청하여 검토를 받았다.

## III. 문화정책의 목표 '문화다양성'

### 1.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국가 차원의 문화분야 법제의 변천과정과 시기별 문화행정의 추진체계 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5년부터 1959년에는 국가 문화정책은 주로 통제와 동원의 방식이 주를 이루었던 '공보수단으로서 문화행정'이 특징인 시기였다. 둘째, 1960년부터 1989년에는 국가 주도의 진흥전략과 육성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하던 '국가 중심의 문화진흥과 육성'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공연법(1961년)', '문화예술진흥법(1972년)', 문화행정 담당 부처(문화공보부 체제)와 기관(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셋째, 1990년부터 2017년에는 문화발전을 추구하였다. 1990년대 들어 문화부의 설치는 문화정책의 거시적 방향으로 자리를 잡기 위한 시기였으며, 2000년대 문화예산 1%를 달성하며 문화정책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10년 문화기본법 제정, 그리고 예술지원 정책에서의 민간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팔길이 원칙'의 실현과 문화향유권 증진 방향으로 추동되었다. 그러나 예술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의 강화나 블랙리스트 등의

작동으로 '문화'를 중시하는 문화주의적 접근만으로는 권력의 위협으로부터 문화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정책의 성찰과 새로운 과제를 요구하는 시점에 놓여졌다.

문화정책은 국가의 행정만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 특히 문화적 변화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전개되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을 포괄한다. 협의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문화행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정부 주도 문화행정이 곧 문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시대적 변천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정책은 국가주의적 문화정책으로부터 문화국가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전개과정을 거쳐 왔다. 그리고 그간의 문화정책 흐름으로부터 우리사회의 성찰은 다가오는 미래 정책의 개선 과제로 문화다양성의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차이와 분권의 문화, 공정한 문화 환경 구축에 대한 필연성을 더욱 요청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은 인류 생존을 위한 평화의 조건이자, 공동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화정책의 목표가 되었다.

## 2. 정책목표: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은 2001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는 서로 간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킴으로서 인류의 창조적 다양성을 높이는데 함께 협력하게 되었다. UN은 2002년 12월 20일 개최된 총회에서 매년 5월 21일을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World Day for Cultural Diversity for Dialogue and Development)'로 제정하였으며, 이 후 UNESCO에서 2005년에 발표된 문화다양성 협약을 시작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기본 권리로 규정되었다.[10] 이 협약에 따르면, 모든 문화는 동일한 수준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증진되어야 하며, 인류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문화의 보존 및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05년 협약에서 문화다양성을 위한 모니터링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 체계 지원',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균형적으로 공급하고 예술가와 문화전문가들의 이동성을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 체제로 문화통합', '인권과 기본적 자유 증진'으로 명시했다. 모니터링 분야로는 문화정책, 공공서비스 미디어, 디지털 환경, 시민사회와의 협력, 예술가와 문화전문가의 이동성,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조약과 협정,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과 계획,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그램, 성평등, 예술적 자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핵심원칙은 정보 전달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참여과정이 투명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 국가의 정책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창조와 배급을 위해 표현과 정보, 소통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제 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UN은 한국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우려 표명과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에 관한 권고, 즉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업무나 사업에 관한 개선을 넘어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본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문화다양성 국제기금(IFCD)출연을 권고하였다. 한국은

10) UNESCO(2017), *Re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UNESCO World Report.

2010년에 비로소 전 세계에서 110번째 문화다양성 비준국이 되었다. 문화다양성을 한국 내에서 보호하고 증진함과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전 인류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의 의지를 본격화하게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유되거나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협약 비준국으로써 반드시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창조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과 문화정체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범주적으로는 문화생태계의 전 가치사슬(창소, 생산, 전파/ 유통, 접근, 향유)에 따라 산업적, 비산업적 영역을 포괄하고,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문화유산 개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로써 다양한 문화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공평한 표현, 개방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문화다양성 실현을 위한 제도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였는데 이는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다.[11]

> 국내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데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법률 제 12691호(2014.5.28. 제정, 2014.11.29. 시행) 제 2조〉

그런데 이 법률을 잘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실무적인 행정 행위로 개념 정의와 책무,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 마련, 국민인식 제고 관련 활동(문화다양성의 날, 교육), 지원과 권한 위탁 근거 마련 등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법률적인 정비과 개정을 제기하고 있다. 법률 제정과 함께 문화체육부가 담당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총괄 기능의 형식성과 취약성을 개선, 보완하고,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포괄하지 못했던 정책 과제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다양성의 실현과 확산 도모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표사업으로 201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무지개다리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지역사회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 운영기관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07개 운영기관이 지역 문화다양성 기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

11) UNESCO(2017), *Re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UNESCO World Report.

12) 법제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문화다양성의%20보호와%20증진에%20관한%20법률#undefined, 2019. 5. 10.〉.

〈표 1〉 국내 문화다양성 지원사업(문화체육관광부, 2018)

| 활 동 명 | 사업목표 | 세부내용 |
|---|---|---|
| 문화다양성 교육 | 문화다양성 주체로 성장하기 | – 문화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삶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교육을 운영<br>–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올바른 문화다양성 인식을 갖도록 돕기 위해 양질의 커리큘럼을 개발하며 전문인력 연수를 통해 현장실무자의 역량강화 |
| 무지개다리 사업 | 문화다양성 의미 찾기 | –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의 문화소통 및 문화예술 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문화주체로서의 자존감을 가질수 있도록 지원<br>– 이색적이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시각과 창의력 증진 |
|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http://www.cda.or.kr) | 문화다양성 의미 나누기 | – 문화다양성 아카이브(Cultural Diversity Archive)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조사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자원을 축적하고 유통하는 채널<br>– 국내 유일의 문화다양성 전문아카이브로서 다름의 이해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돕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 |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 문화다양성 함께 즐기기 | – UN이 지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5월 21일)부터 일주일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해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다양성 주간을 운영 |

그러나 아직까지 문화다양성의 본래적 가치와 지향점을 충분히 구현하기에는 문화정체성, 다문화정책 등의 특정 정책 사업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이주 노동자나 결혼이민자와 같은 제한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특화되어 왔으며, 동화정책에서 다문화정책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에 해당하는 구성원에 대한 지원과 대상 특정적인 '복지'패러다임에 치우쳐져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이러한 접근의 다문화정책은 오히려 문화의 우열을 조장하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2018년 발표된 '문화정책 2030'은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표적인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문화다양성 정책위상 강화와 법제 정비 ②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제고 ③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④ 언어문화 다양성 실현 ⑤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현대화 ⑥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국내외 관광객 정책 마련 등이다. 이 중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을 살펴보면, '문화기본법'의 '문화권'의 개념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다양성 ' 개념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언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문화정체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금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문화정체성을 표현하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사회구성원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방향에도 한계가 존재했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개념이나 사업이 사회문화적 차별을 조장하거나 지극히 단면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념과 범주에는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구별, 분류, 분리에

따른 정태적, 모자이크적 다문화정책을 넘어 사회통합과 상호교류의 역동적 문화혼합 또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을 재설계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상성'의 위계구조를 수평화하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Ⅳ. 문화다양성의 주요쟁점과 담론들

##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오직 하나의 문화적 가치만 인정하는 동화주의나 단일 문화주의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3] 다문화주의 이론가인 Taylor[14]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주류 집단이 소수 집단을 상호 동등한 가치를 집단으로 인식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라고 정의하였다. Martiniello[15]는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다문화주의는 정치이념 또는 정책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된다. 수많은 이민자들로 인해 이미 다문화 국가를 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의 다문화 정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소수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없애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상이한 인종 배경을 가진 사회집단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자신의 문화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개방적인 사고를 갖는 것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다문화 지향적 태도이다.[16] 다문화수용성은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고 차별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인지적 측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타 문화권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공감하는 정서적 측면, 다문화 환경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행동적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17] 더 나아가 다문화 수용성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에 대한 태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권리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해석되고 있다.[18]

## 2. 문화정체성과 문화적응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은 한 국가의 고유문화를 공유하며 자신을 그 집단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19] 또한 문화적응은 상이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문화와 사회 환경에서 장기간의 접촉을 통해 해당 문화에서 적절하거나 필요한 가치와 행동을 습득하는 변화과정이라

13) 조현상(2010), "다문화 담론"의 한계성과 유효성에 관한 고찰-한국 다문화사회 수렴(收斂)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동서철학회』 63, pp.219-246.
14) 이윤정(2016), 학령기 한국어 학습자의 다문화주의 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분석 및 개발 방안 연구, 『다문화와 인간』 5(2), pp.3-34.
15) M. Martiniello and B. Piquard(2002), *Diversity in the City*(Spain: Universidad de Deusto).
16) 이지영(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53.
17) 김미진, 정옥분(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7, pp.69-88.
18)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p.155.
19)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p.120.

고 볼 수 있다.

Berry[20]는 '문화적응모형'을 통해 문화정체성이 문화적응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이주자들은 자신이 속해있던 국가의 문화와 이주한 국가의 문화 중에서 어떤 문화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되며 이주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신이 속해 있던 문화를 포기하고 이주한 사회로 적응하는 경우는 동화유형이며, 자신이 속한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주한 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은 통합유형이다. 새로운 문화와 환경으로의 이동과 같은 특정한 변화에서는 개인의 적절한 적응이 요구된다.[21] 또한, 문화의 적응하는 형태는 단순하고 획일적이지 않으며 개인의 발달 상태와 상황의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22] 이와 관련하여 Berry & Sam[23]은 두 가지 기준을 통해 네 가지 문화적응 유형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의 문화에 적응함에 있어서 이전 사회의 문화정체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즉,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의 문화에 적응함에 있어서 이전 사회의 문화정체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문화적 유지(cultural maintenance)'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교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접촉과 참여(contact and participation)'이다.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 3. 상호문화성과 문화지능

문화다양성은 환경, 교육, 보건 영역과 연결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문화유산, 자원의 활용, 복지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영역에 관심을 갖고 보기는 어렵다. 문화다양성의 주요영역은 크게 네 가지(언어, 교육,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콘텐츠, 창의성과 시장)로 구분된다. 이 중 창의성이 문화다양성의 기본 토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개인 뿐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호문화능력(intercultural competencies)이 중요하다.[24] Roman(2009)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참조하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여섯 가지 요소 중 '코드'가 포함된다. 발신인과 수신인은 서로 공유하는 하나의 체계, 혹은 문법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타 문화권의 사람과 소통하려면 상대방의 문화가 지니는 가치체계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몰이해, 오해, 소통 단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상호문화성은 문화를 창출하고 문화적 관계를 매개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시작하여, 한 문화권의 인간과 다른 문화권의 인간의 만남과 이해, 그리고 상호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개별문화의 특수성과 보편문화의 보편성의 상관성을 가리킨다.[25] 상호문화주의에 기

---

20) J. Berry(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 pp.201-234.

21) 김인숙, 조광문(2017),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참나다례와 앱의 융합 프로그램, 『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2), p.446.

22) J. Berry, U. Kim, and D. Mok(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pp.491-511.

23) J. Berry and D. Sam(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 pp.291-326.

24) UNESCO(2006), *Guidelines on International Education*, UNESCO World Report.

25) 박인철(2015), 『현상학과 상호문화성』(서울: 아카넷), p.47.

초한 문화다양성 교육은 문화적 통합과 동질성을 강조한 다문화주의가 간과할 수 있는 문화 내 다양성과 인간집단의 본질적 특성, 그리고 내적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상호문화주의에 기초한 문화다양성 교육은 문화적 통합과 동질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문화 내 다양성과 집단이 지니는 본질적 특성, 그리고 내적 다양성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적 특징은 문화역량(cultural competency)과 복수적인 문화정체성(cultural identity)으로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실천적 역량을 통해 갖출 수 있다.[26]

이처럼 상호문화능력은 문화코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영학 분야에서는 문화 간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문화지능(cultural intelligence)'이 높은 특정한 개인이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문화지능은"문화적 차이를 인지하고 적응해내는 능력, 즉, 상이한 문화와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문화적 갈등 없이 어울리거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27] 또한 문화지능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문화적 지식과 사고방식을 포함하는'문화전략적 사고', 인내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려는'동기'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행위'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화지능이 높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28] 문화전략적 사고는 타 문화권 사람들의 가치체계와 행동 양식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 사고와 관련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 문화권 사람들의 가치체계와 행동 양식에 있어서의 절차와 관례까지 포착하고 이해한다. 문화지능의 동기는 핵심가치와 선호도에 따라 부여되며, 이를 통해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한다. 문화지능의 행위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서 적절하게 관찰, 인식, 조절,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상이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특성이 바로 그들의 외양과 행동, 대화라는 점이기에 행위 역시 문화지능의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 4. 문화역량과 문화다양성 역량

문화역량 연구 중 대표적인 것은 독일의 연방 문화 청소년 교육 협회(BKJ)와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BMBF), 유럽위원회의 2003년 국제회의인 "Developing Competencies in Cultural Education"이다. 이는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독일의 연방문화청소년교육협회(BKJ)의 "Key Competencies through Cultural Education-Evaluating and Certifying Educational Effects of Cultural Education" 프로젝트와 함께 조직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예술과 문화 환경 속에서의 직접 활동을 하고 오랜 시간을 예술, 문화를 접하면서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되었는지 조사하여 이런 역량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것이었다. 이는 문화교육 활동의 교육적 영향을 측정하고 증명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29] OECD의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문화와 예술을 사회적 영역(social field)과 도구(tool)로 보고 있으며, 문화역량과 관련하여 영역으로써의 문화와 도구로써의 예술 문화로 범주화하고 있다.[30] 또한 '도구

26) 이동성, 주재홍, 김영천(2013),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적 특질 및 이론적 배경 고찰, 『다문화교육연구』 6(1), pp.51-72.
27) C. 얼리(2007), 『문화지능』, 박수철(역)(서울: 영림카디널, 2007), pp.20-35.
28) 앞의 책, pp.20-35.
29) 이병준(2013), 진로역량으로서의 문화예술역량, 『KAAE 한국예술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1-38.
30) 앞의 책, pp.1-38.

(tool)'라는 개념을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역으로서의 문화 개념을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개념과 연관을 지어 문화역량을 살펴보자. 협의적 관점에서 보면, 미술과 문학, 춤, 드라마, 연극, 음악, 미디어를 도구로 활용하여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광의적 의미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적 문해력이 시민의 역량으로 해석된다.[31][32] 문화다양성 역량에 대한 정의는 문화다양성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필수적 능력, 역량이라는 점에서 정의되고 있는데, 유네스코[33]와 Fantini[34] '문화간 대화능력',이 Deardorff[35]의 '문화간 역량', '문화다양성 역량'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연구보고서 「문화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방안」 에서는 문화다양성 역량을 지식적 측면, 가치 및 태도의 측면,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고 이를 실천하는 종합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 역량으로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36]

OECD의 DeSeCo 핵심역량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식전달 중심교육으로부터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인성, 협업능력,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역량함양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역량함양 중심교육에서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 의사소통능력과 협업능력, 비판적 그리고 성찰적 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기통제 및 조절능력 등이 요구된다.[37] DeSeCo의 후속적인 작업인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변화 환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가치 창조, 책임감, 딜레마 대처 등을 포함하는'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까지 포함하고 있다.[38]

## V. 문화다양성 무용연구의 동향: 내용분석을 통한 선행연구들의 시사점

### 1. 문화다양성 무용교육 프로그램

문화다양성 무용교육 프로그램 분석 또는 개발에 관한 연구는 다문화 무용교육이 민속춤 동작 익히기에 국한되어 기능적 측면에 치중한 교육으로 문화다양성을 실천하기에는 그 범위가 매우 좁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39][40][41]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구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민속무용의 내용 확장,

---

31) 강인애(2012), 2012 제1회 문화 다양성교육 심포지엄 자료집-문화기반시설 담당자의 문화다양성 역량에 대한 소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2) 이병준, 박응희, 한현우(2010), 공무원 다문화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위한 요구 분석, 『문화예술교육연구』 5(1), p.43.

33) UNESCO(2006), *Guidelines on International Education*, UNESCO World Report.

34) A. Fantini(2007), *Explor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Washington D.C.: Washington University).

35) D. Deardorff(2006),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3), pp.241-266.

36) 장의선, 이소연(2017), 문화 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사회과 교수학습 방안, 『사회과교육연구』 5(1), pp.143-155.

37) 김지영, 김은혜, 홍애령(2019), 문제중심학습(PBL)의 무용수업을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 미래사회 대비 대학무용의 변혁적 교육, 『한국무용학회』 19(1), pp.29-47.

38) 장의선 외(2016), pp.143-155.

39) 김영미, 이종길, 홍혜전(2014), 사회과학분야: 다문화아동의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전래동요 움직임 놀이" 체험분석, 『한국무용과학회지』 31(1), pp.1-17.

40) 김현남(2015),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한 창작무용 교육모형 개발, 『무용예술학연구』 52, pp.15-34.

토론학습 및 조사학습 등 구체적인 활동과 연계한 민속무용, 창작무용, 즉흥무용, 놀이를 포함한 통합 프로그램, 특정 무용가의 삶과 대표작품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구성을 볼 수 있다.[42][43]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과 간의 통합교육과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44] 또한, 문화다양성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인문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45][46] 교육프로그램의 적용 결과로는 학습자가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어, 인종, 성, 사회계급 등 문화의 여러 영역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및 정체성, 인권, 세계 시민성의 가치를 습득하는 등 신체적, 심리 정서적,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47][48][49] 이처럼 문화다양성 역량의 통합적 관점과 프로그램에 관한 논의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실천과 방법론: 담론으로부터 확장된 무용의 실천성

많은 연구자들은 문화다양성의 담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이 담론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천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서예원[50]은 춤만들기, 춤추기, 춤감상하기, 춤나누기와 즉흥, 시청각 자료의 활용, 토의 및 토론 학습 등 문화다양성을 무용교육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관한 무용교수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최경희[51]는 '홈리스 발레 교육', 소년원 학교 예술치유교육,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 '엄마와 딸'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용교육과 작품 활동에서 다양한 영역과 대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무용교육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문화다양성 무용교육의 실천영역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다문화주의의 맥락에서는 무용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공감 능력 증진 및 차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둘째, 문화 다양성 무용교육의 실천성은 완성된 작품과 형태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과정에 함께 참여하거나 작품을 감상하고 함께 향유하는 과정을 통해 무용을 통한 철학적 사유, 지식, 문화, 감성,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치기반의 과정중심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교육대상이 참여할 수 있는 보다 개방적인 방법론을 찾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1) 나경아, 오유진, 박현정(2012),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4, pp.19-38.
42) 박정선(2017), 대학교 무용학과 교과과정 내 다문화 무용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64(2), pp.1-24.
43) 신하라(2017), 즉흥무용을 통한 다문화 무용교육의 개선안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1), pp.81-99.
44) 이정연(2008), 다문화 사회 속의 초등무용교육: 변화를 위한 모색-포크댄서 (Folk Dance) 를 중심으로, 『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6(3), pp.181-192.
45) 최윤영(2010),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무용교육의 적용 방안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3, pp.261-282.
46) 정고운, 이정연(2017), 아시아 민속무용을 활용한 다문화 통합교육 프로그램 연구, 『한국초등교육』 28(4), pp.107-123.
47) 정수정, 김영식(2015), 민속표현 활동을 적용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수용 태도 및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 pp.115-126.
48) D. Risner and S. Stinson(2010), Moving Social Justice: Challenges, Fears and Possibilities in Danc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the Arts* 11(6), pp.1-26.
49) D, Robinson and E.and Domenici(2010), From inclusion to integration: Intercultural dialogue and contemporary university dance education,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1(3), pp.213-221.
50) 서예원(2014), 초등무용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능성,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2), pp.13-22.
51) 최경희(2011), 사회적 소통으로서 무용교육의 힘, 『한국예술연구』 0(3), pp.85-109.

### 3. 문화다양성 무용교육의 전제 '신체적 경험'

문화다양성 무용교육의 핵심적 역할은 신체적 경험이다. 따라서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이 문화적 상대주의를 인지하고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정체성을 습득하기 위해 수반 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은 '신체'에 대한 이해와 '감정'에 대한 인지이다. 신체는 문화를 통해 형성된 습관 및 자연적, 보편적 성격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써 문화와 문화 간을 매개하는 근원적 바탕의 역할을 하며, 감정은 보다 더 개방적인 상호문화적 태도로 진입할 수 있는 포용과 인정의 성격을 포함[52]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적 경험은 우리 자신의 삶과 타인에 대한 재결합을 통해 냉담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 회복이 가능하게 함을 인식시켜 준다.[53] 여기에서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의 신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 하나의 문화로써 신체, 자아 인식 및 자아 정체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신체 등 신체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무용교육의 방법을 도출하는 방법을 고안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상호문화주의를 목표로 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신체적 경험 안에서 문화와 문화 간의 매개, 감정과 분리시킬 수 없는 '신체'에서 실마리를 찾고, '체득'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전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 4. 타자와의 소통과 문화적 공존

무용교육의 다양한 표현방식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와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다. 인종, 지역, 언어의 장벽을 넘어 신체를 통해서 타자와 소통하고 공존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는 점,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철학적 고찰과 문화적인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의 맥락에서 무용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54] 무용을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로 서예원[55]은 서로 다른 개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무용교육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인지, 정서, 감각이 통합된 움직임 표현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문화적 공존 실천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과 다른 의사소통과 문화적 관습을 이해 및 해석하기, 타인의 소통하는 능력 기르기, 문화에 대한 감수성 기르기, 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갖추기를 통한 문화적 공존을 실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허가영[56]은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이민자 가정 자녀와 일반가정의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무용을 통해 상호소통하기, 모두를 위한 무용교육의 확대, 상호문화교육을 적용한 커뮤니티 댄스프로그램 시행 등 상호문화교육을 적용한 무용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홍애령, 남진희[57]는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근거들을 기반으로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의 개념을 도입한 학교무용을 위한 교육목표와 가치체계를 제시하였다.

---

52) 박인철(2015), p.98.

53) S. B. Shapiro(1999), *Pedagogy and the politics of the body: A critical praxis*(New York: Garland), pp.30-51(D. Risner and S. W. Stinson(2010), Moving social justice: Challenges, fears and possibilities in danc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the Arts* 11(6), p.16 재인용).

54) 최윤영(2011),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무용교육의 적용방안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63(63), p.267.

55) 서예원(2014), 초등무용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능성,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2), pp.13-22.

56) 허가영(2016), 21세기 다문화사회의 무용교육: 다문화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으로, 『무용역사기록학』 43(0), pp.143-173.

57) 홍애령, 남진희(2018),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무용의 가치체계와 교육목표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7(2), pp.399-411.

### 5. 젠더 고정관념 벗어나기

문화적 고정관념은 특정한 집단이 권력과 지배를 통하여 타자들을 소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58] 고정관념은 문화를 고정적인 것으로 보고 범주화시켜, 문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낳을 뿐 아니라, 상호문화적 대화의 저해요소가 된다. 특히,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신체는 장애, 성별, 인종, 사회적 표식 등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문화적 정체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으며, 동시에 고정적인 인식과 관념에 의해 소외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Stinson[59]의 연구에서는 사회 저변에 깔린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용교육에도 투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용교육에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침묵과 순응에 주안점을 두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그대로 답습하게 만드는 주입식 교육방식,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창작 수업,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학부모의 인식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이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교육학적 측면에서 무용교육자들이 반성적인 태도로 자기 교수 관점과 행위를 개선하고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맥락과 고정관념을 고려하는 태도에 대한 중요성은 Risner[60]의 남성 무용수와 관련된 무용교육 이슈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용교육 장면에서도 이성애자에 대한 옹호, 성적 가정을 만들게 된다고 제기하였다. 성에 특정 지워지지 않는 움직임, 성별을 반영한 신체, 성의 사회적 구성, 그리고 성 정체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고정관념과 고착화된 인식은 무용에 대한 지배적인 가정, 즉 전형적인 아름다움, 민첩성, 힘 그리고 미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다른 역량을 지닌 다양한 무용수들에게 맞추어져 있을 때, 그 조차도 이 기준에 가까운 신체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헤게모니적 경향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6. 대학 무용교육 시스템을 향한 비판

오랜 고정관념과 서양 중심의 위계적이고 분리적인 무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은 Risner & Stinson[61]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난다. 단일한 교육과정 로드맵은 불공평한 입시 제도와 교육환경을 만들게 된다는 것, 대학 교수진 및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는 대학 교육환경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서양 중심 대학 무용커리큘럼(현대무용)은 다른 문화의 무용을 배척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비판하였다. 여러 다른 무용 형식을 테크닉, 안무, 교육학, 역사 등 무용교과의 모든 과정에 통합시키는 상호문화적 관점의 '통합(integration)'을 강조하였다. 무용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다양성 연구로는 박정선[62]의 대학 무용학과 교과과정 내 다문화 무용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다. 그는 미국의 무용교육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현 한국 대학 무용교육의 커리큘럼에서 문화다양성 교과를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하

58) 이동성, 주재홍, 김영천(2013),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적 특질 및 이론적 배경 고찰, 『다문화교육연구』 6(1), p.62.
59) S. W. Stinson(2005), The hidden curriculum of gender in dance education, *Journal of Dance Education* 5(2), pp.51-57.
60) D. Risner(2007), Rehearsing masculinity: Challenging the 'boy code' in dance education, *Journal of Dance Education* 8(2), pp.139-153.
61) D. Risner and S. Stinson(2010), pp.1-26.
62) 박정선(2017), pp.1-24.

였다. 그는 대안으로 학생들에게 그들이 지닌 가정과 편견에 대해 도전하기를 독려하고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공감, 글로벌 시민의식과 같은 이슈를 제시하여 학생들만의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고착된 관념들이 무용현상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무용교육 상황에서는 교수환경 및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에 대한 반성적 시각이 필요하다.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 문화적 이슈를 포괄한 다양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 무용교수의 중심이 될 무용 전공자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의 전문성은 부재하다. 이에 무용교육의 목표와 문화다양성 교육의 목표가 상통하는 지점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이를 반영한 실천이 요구된다. 특히, 문화다양성 무용교육을 위하여 대학 수준의 커리큘럼과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실행이 요구된다.

## VI. 논의 및 결론

최근 종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한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양한 매체에서 패러디되고 유행어를 낳을 만큼 대중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획일화된 교육제도, 그리고 초등교육부터 대학입시까지 사교육 열풍을 올리고 있는 현 세태를 풍자한 극으로부터 얻는 공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개인의 다양성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한국입시의 이상형이자, 치열한 경쟁구조의 '쥐 경주(Rat Race)'로 상징화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다양성으로부터 터부시된 상징들이 무수했다. 특히, 젠더와 관련된 이슈에서 상당하다. '여성스러운' 또는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는 성적 특성을 사회적으로 규정짓거나, 신체미의 기준을 고정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를 통해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기몸 긍정주의 (body positive)'를 들어 볼 수 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고착된 인식에 맞서거나 새롭게 바라보는 현상이다. 특히, 고전적인 여성성보다는 역설적 메시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유도하는 변화를 읽을 수 있다.[63]

그렇다면, 무용을 향한 사회의 고정관념은 없었던가? 이 역시 역설적인 메시지를 추구하고 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최근 발레리나를 모델로 한 브랜드 광고를 예로 살펴보자. 리복코리아는 '완벽은 없다(Perfect Never)'를 기치로 '우먼스 캠페인'을 펼쳤다. 이 광고는 발레리나 강수진의 여성성과 우아한 아름다움보다는 강인하고 숭고한 노력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타고난 DNA에 도전하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SKII' 화장품 광고, 서구 중심의 신체와 미적 기준에 넘어서는 동양인 최초 프리마돈나가 모델로 등장한다. 이처럼 발레리나를 모델로 기용한 두 광고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고착된 사회인식에 맞서 도전하는 무용인들의 정신과 그 과정의 경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다. 이들 모두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도전과 다양성을 포용하는 변화된 사회 트렌드를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63) S. Barr and W. Oliver(2016), pp. 97-112.

우리의 얼굴 생김이 다른 것처럼,[64] 예술가마다 표현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생각하는 것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람과 사람의 차이,[65] 집단과 집단의 차이,[66] 지역사회 간의 차이,[67][68] 나라 간의 차이,[69][70] 문화권 간의 차이[71]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은 문화다양성과 연관하고 있다. 바야흐로 '문화다양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72]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문화생태계를 목표로 현재 한국은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선언한 상태이다. 아무리 잘 완비된 법과 제도, 시스템 모두 이상적인 교과서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사람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도 실현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을 포용하는 무용교육의 다양한 실천성이야말로 핵심과제가 될 것이 여기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찰적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문화다양성을 목표로 하는 문화정책의 흐름과 문화생태계의 변화에 무용교육의 적극적인 관여와 민감하고 새로운 접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다문화'를 위해 시행된 많은 정책과 실천에 대한 반성적 시각에서부터 다른 문화와 집단 사이에서 상호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고 다양성 가치가 존중되고 문화다양성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73] 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와 접근성 증진을 위해 장애, 어르신 문화, 북한 이탈주민, 재외동포 등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참여자간 교류, 문화적 표현과 체험 기회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생각과 표현의 차이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함이 공존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함께 이루는 것이 문화다양성의 꿈이다.

둘째, 문화다양성은 차이를 대하는 태도, 즉 차이를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즐길 줄 아는 수용의 마음과 태도를 키우는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다문화 무용교육에 치우쳐져 있던 문화다양성 교육으로부터 확장된 접근이 요구된다. 문화다양성을 담지하는 무용교육은 문화정체성, 상호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역량 등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 더 나아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적 차별, 혐오, 복지나 시혜, 치료 관점을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고민하며 개인, 집단 간의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의 지향점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

64) A. Walker(2019), pp.36-53.

65) R. Garrett and A. Wrench(2018), pp.97-113.

66) D. Coe(2003), "Dance has connected me to my voice ": The value of reflection in establishing effective dance pedagogy, *Waikato Journal of Education* 9, pp.39-50

67) T. Østern and E. Irgens(2018), Interfering with the lived field of dance pedagogy from organizational and leadership studies perspectives-an explorative intervention with performing and teaching dance artists, *Journal of Dance Education* 19(1), pp.57-73.

68) M. Fitzgerald(2017), pp.1-7.

69) K. Stevens et al.(2019).

70) A. Mabingoa(2019), Dancing with the "Other:" Experiential and Reflective Learning of African Neo-Traditional Dances Through Dance Education Study Abroad Program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the Arts* 20(2), pp.1-25.

71) N. Rowe, R. Martin, R. Buck, and E. Anttila(2018), Researching dance education post-2016: The global implications of Brexit and Trump on dance education,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9(1), pp. 91-109.

72) A. Sööt and E. Viskus(2014), pp.290-299.

73) 서예원(2014), 초등무용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능성,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2), p.15.

셋째, 문화, 교육, 경영, 정책 등 간학제적(inter-disciplinary) 관점에서 상호교류의 역동적인 문화 혼합과 상호문화주의 관점을 확산하는 무용학 연구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다문화 담론으로부터 확장된 실천성, 고정된 관념과 인식에 구애받지 않고 기존의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의 중요성, 그리고 국가와 민족적 다문화주의로부터 신체, 젠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이슈 등 무용학 안에서 확장된 상호문화성의 관점을 제안하는 학술적 행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강인애(2012). 문화기반시설 담당자의 문화다양성 역량에 대한 소고. 2012 제 1회 문화 다양성교육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2018).『2017 문화예술정책백서』.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인철(2015).『현상학과 상호문화성』서울: 아카넷.

얼리. C.(2007).『문화지능』. 박수철(역). 서울:영림카디널. 2007.

이병준(2013). 진로역량으로서의 문화예술역량.『KAAE 한국예술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1-38.

Fantini(2007). *Explor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petence*. Washington: Washington University.

Martiniello, Piquard(2002). *Diversity in the City*. Universidad de Deusto.

Shapiro(1999). *Pedagogy and the politics of the body: A critical praxis*. New York: Garland.

김미진, 정옥분(2010), 아동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인간발달연구』, 17: 69-88.

김미진(2010).『아동의 다문화수용성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영미, 이종길, 홍혜전(2014). 다문화아동의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전래동요 움직임 놀이" 체험 분석『한국무용과학회지』, 31(1): 1-17.

김인숙, 조광문(2017).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참나다례와 앱의 융합 프로그램.『한국융합학회논문지』, 8(12): 445-450.

나경아, 오유진, 박현정(2012).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한국무용기록학회지』, 24: 19-38.

박정선(2017). 대학교 무용학과 교과과정 내 다문화 무용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무용예술학연구』, 64: 1-24.

서예원(2014). 초등무용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의 가능성.『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2): 13-22.

신하라(2017). 즉흥무용을 통한 다문화 무용교육의 개선안 연구.『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1): 81-99.

이동성, 주재홍, 김영천(2013).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적 특질 및 이론적 배경 고찰.『다문화교육연구』, 6(1): 51-72.

이병준, 박응희, 한현우(2010). 공무원 다문화역량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위한 요구 분석.『문화예술교육연구』, 5(1): 39-65.

이윤정(2016). 재인용 학령기 한국어 학습자의 다문화주의 이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 방안 연구.『다문화와 인간』, 5(2):3-34.

이정연(2008). 다문화 사회 속의 초등무용교육: 변화를 위한 모색-포크댄서(Folk Dance)를 중심으로.『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6(3): 181-192.

이지영(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의선, 이소연(2017). 문화 다양성 역량 증진을 위한 사회과 교수학습 방안『사회과교육연구』, 5(1): 143-155.

정고운, 이정연(2017). 아시아 민속무용을 활용한 다문화 통합교육 프로그램 연구.『한국초등교육』, 28(4): 107-123.

정수정, 김영식(2015). 민속표현 활동을 적용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수용 태도 및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 115-126.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조현상(2010). "다문화 담론"의 한계성과 유효성에 관한 고찰-한국 다문화사회 수렴(收斂)과정을 중심으로.『한국동서철학회』, 63: 219-246.

최경희(2011). 사회적 소통으로서 무용교육의 힘.『한국예술연구』, 3: 85-109.

최윤영(2010).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무용교육의 적용 방안 고찰.『대한무용학회논문집』, 63: 261-282.

허가영(2016). 21세기 다문화사회의 무용교육: 다문화교육에서 상호문화교육으로.『무용역사기록학』, 43: 143-173.

홍애령, 남진희(2018). 문화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무용의 가치체계와 교육목표 탐색.『한국체육학회지』, 57(2): 399-411.

황정미(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 관점에서.『아세아연구』, 53(4): 152-184.

Anttila, Martin, Nielsen(2019). Performing difference in/through dance: The significance of dialogical, or third spaces in creating conditions for learning and living together.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31: 209-216.

Barr, Oliver(2016). Feminist pedagogy, body image, and the dance technique class.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7(2): 97-112.

Berry, Sam(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 291-326.

Berry(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s. In *Proceedings of the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Berry, Kim, Mok(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Coe(2003). "Dance has connected me to my voice": The value of reflection in establishing effective dance pedagogy. *Waikato Journal of Education*, 9: 39-50.

Deardorff(2006).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3): 241-266.

Fitzgerald(2017). Community to Classroom: Reflections on community-centered pedagogy in contemporary modern dance technique. *Journal of Dance Education*, 17(1): 1-7.

Garrett, Wrench(2018). Redesigning pedagogy for boys and dance in physical education.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24(1): 97-113.

Mabingo(2019). Dancing with the "Other:" Experiential and Reflective Learning of African Neo-Traditional Dances Through Dance Education Study Abroad Program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the Arts*, 20(2): 1-25.

Østern, TIrgens, E. J. (2018). Interfering with the lived field of dance pedagogy from organizational and leadership studies perspectives–an explorative intervention with performing and teaching dance artists.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9(1): 57-73.

Risner, Stinson(2010). Moving social justice: Challenges, fears and possibilities in danc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 the Arts*, 11(6): 1-26.

Risner(2007). Rehearsing masculinity: Challenging the 'boy code' in dance education. *Research in Dance Education*, 8(2): 139-153.

Robinson, Domenici (2010). From inclusion to integration: Intercultural dialogue and contemporary university dance education.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1(3): 213-221.

Rowe, Martin, Buck, Anttila(2018). Researching dance education post-2016: The global implications of Brexit and Trump on dance education. *Research in Dance Education*, 19(1): 91-109.

Sööt, Viskus(2014). Contemporary approaches to dance pedagogy–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2: 290-299.

Stevens, Pedro, Hanrahan(2019). Building an authentic cultural curriculum through tertiary cultural dance. *Arts and Humanities in Higher Education*. Inpress.

Stinson(2005). The hidden curriculum of gender in dance education. *Journal of Dance Education*, 5(2): 51-57.

Walker(2019). Rebalancing dance curricula through repurposing black dance aesthetics. *Research in Dance Education*, 20(1): 36-53.

법제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문화다양성의%20보호와%20증진에%20관한%20법률#undefined, 2019. 5. 10.〉.

UNESCO(2010). *UNESCO world report 2: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UNESCO(2006). *Guidelines on International Education*. UNESCO World Report.

UNESCO(2017). *Reshaping cultural policies: advancing creativity for development*. UNESCO World Report.

논문투고일 2019. 8. 15.
심 사 일 2019. 8. 20.
심사완료일 2019. 9. 2.

**Abstract**

# An Analysis of Trends in Dance Education Research for Cultural Diversity

**Kim, Ji Young* · Ha, Young Mi** · Kim, Eun Hye*****
Professor of Sangmyung University* · Doctoral Student of Sangmyung University** ·
Research Professor of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offer data that could be helpful for classification of research areas and to suggest a direction of researches in the future based on the analysis on trends of studies on cultural diversity in the dance education field. Therefore, the study collected data after selecting 'Research in Dance Education', 'Journal of Dance Education' as the objects of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low of cultural policies and changes of cultural ecosystem that had a target of cultural diversity should be accompanied with active involvement and a sensitive approach in the dance education. Second, cultural diversity required an approach expanded from education of cultural diversity leaned towards multi-cultural dance education in the practical aspect. Third, it was required to have an initiative of researches on dance studies diffusing dynamic culture mixing of mutual interaction and a viewpoint of interculturalism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such as culture, education, management and policies.

Keywords: Cultural diversity(문화다양성), Dance education(무용교육), Cultural policy(문화정책) Cultural ecosystem(문화생태계), Trend analysis(동향 분석)